

# CGNTV

M A G A Z I N E | Winter 2017\_Vol.18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04384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T.02)796-9800 F.02)749-6638

[www.cgntv.net](http://www.cgntv.net)



친구들이 나의 이 고백을 좀 들어보겠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고백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몰랐어  
언제 어디나 함께하신다는 놀라운 그 사실에  
나의 삶이 변한 거야

너와 나누고 싶어 이 기쁨의 비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데

모두에게 전할꺼야 예수님 사랑으로

- 드라마 <다시 봄> 중 어릴적 함께 부른 찬양 '들어보겠니'



# CONTENTS

Winter 2017\_Vol.18

여는 글 특집단막드라마 <다시 봄> 중에서  
포토에세이 사진작가 신미식

## I. Special

### 특집단막드라마 <다시 봄>

- 04 제작스토리
- 08 출연자 인터뷰  
황선희, 성병숙, 서태화, 심지호
- 16 인물관계도

### 2017년 결산

- 17 베스트 프로그램
- 18 사역 스토리 은혜의 2017

## II. Contents

- 20 CGN 초이스 특집다큐멘터리  
<독일 통일, 기도에서 기적으로>  
<서서평과 서서평들>
- 22 모바일 콘텐츠  
<PAUSE>, <감수성>, <I am 쌤>  
<두근두근 마카롱>

## III. Mission

- 24 선교지의 아침 베트남 그레이스 선교사
- 26 포커스  
태국 첫 기독교 IPTV 개국

## IV. News

- 30 국내 / 해외뉴스
- 34 시청수기 공모전 수상작
- 35 후원자 스토리
- 36 요일별 편성표
- 38 후원안내
- 39 에필로그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 COVER STORY

한 영혼에게 다시 봄을...  
CGNTV 첫 드라마 <다시 봄>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2017년 성탄절  
시청자들을 만난다.

###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7년 12월 24일(통권 제 18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이웅경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기획 CGNTV 커뮤니케이션팀  
진행·편집 현아영, 정원이, 아대준, 김 란, 조인애  
글 조인애  
사진 아대준, 박민수, 스파지오, 여준원, 정은아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 집으로 가는 길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이었다.  
뜨겁던 태양의 열기도 수그러드는 시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여행자는 새로운 잠자리를 찾아 길을 나선다.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오후의 시간은 언제나 신비롭다.  
길 위로 떨어지는 햇살은 언제나 설렌다.  
노랗게 변한 하늘과 그 아래 사람들.  
달리는 차안에서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안부를 묻는다.  
우리는 지금 모두 집으로 가고 있다.

- 에티오피아에서

신미식 사진작가, 여행수필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프레임 안에 사람과 삶,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낸다.  
저서 <머문자리>, <사진가는 길에서 사람을 배운다>, <에티오피아, 천국의 땅>외 다수



## 1. Story

<다시 봄>, '봄의환' 작가를 만나다

예정된 만남이었을까. 드라마 <다시 봄>은 지난 3월, 타이틀을 연상케 하는 필명의, 봄의환 작가가 합류하면서 보다 탄탄한 스토리라인이 생겼다. 봄의환 작가는 드라마 <별순검>(MBC드라마넷, 2010), 영화 <마지막 선물>(2008), 뮤지컬 <황진이>(2006) 및 다수의 도서를 집필한 작가로, <다시 봄>의 캐릭터들을 보다 실제화 시켰고, 각 장면이 설득력을 더했다. 제작 초기 <다시 봄>은 한 줄 스토리와 섬처럼 홀로 있는 개인의 고독과 치유에 대한 해답을 찾아

보는데서 출발했다. 작가와 제작진은 이를 위해 시청자들이 보다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요소들을 치열하게 고민해 대본을 완성했다.



**Synopsis** 30대 중반 승승장구하고 있는 드론 연구가 보라는 엄마의 치매와 자신의 지병인 메니에르를 외면한 채 그저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간다. 프로젝트 발표를 코앞에 둔 어느 날, 보라는 갑자기 메니에르 증상이 나타나면서 일

에서 제외될 상황에 놓이고, 설상가상으로 치매인 엄마까지 사라진다. 엄마의 기억이 19년 전 과거에 묶여있던 사실을 떠올리며 목사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억 저편의 옛 교회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유품을 발견한다.

## Production Note

### 다시봄 다섯 번의 만남

홀로 긴 겨울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한, 봄 같은 이야기. CGNTV 특집단막드라마 <다시 봄>(연출 홍현정, 각본 봄의환)이 오는 12월 25일, 선물처럼 그 베일을 벗는다. CGNTV 첫 드라마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다시 봄>은 60분 단막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부터 캐스팅, 스태프에 이르기까지 눈에 띄는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한데 모여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들과의 만남이 곧 <다시 봄>의 제작스토리라는 것이 제작진의 말. 이에 특별했던 그 만남을 되짚어보며, 올 12월, 시청자들에게 이른 봄을 선사할 드라마 <다시 봄>을 살펴봤다.

## 2. Production

드라마 전문 제작사 MI를 만나다

드라마 전문 제작사 MI(대표 이정희)가 <다시 봄>의 공동 제작으로 참여했다. 최근 <이번 생은 처음이라>(tvN, 2017) 등 매년 화제가 되는 작품들을 꾸준히 제작해 온 MI와의 협력은 예



상치 못했던 경로로 성사돼 흥미를 더했다. MI의 이정희 대표와 안현숙 제작이사가 각각 다른 경로로 작품을 처음 접한 후, 서로 제작을 염두에 둔 것. <다시 봄>의 연출을 맡은 홍현정 PD는 "제작 프로듀서 한 명만 기대했던 상황에서 제작사 MI와의 협력은 여러 면에서 큰 힘이 됐다"고 했다.

### 3. Casting

믿음의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다시 봄>은 연기 그 이상의 중심을 보여준 배우들이 한데 모였다. 또한 기독교 단막극이라는 특성에 비해 주조연급 모두 눈에 띄는 배우들이 출연해 관심이 집중됐다. 주연인 보라 역의 황선희 씨는 드라마 <싸인>(SBS, 2011)으로 강렬하게 데뷔해 탄탄한 연기력으로 <주군의 태양>(MBC, 2013), <한 번 더 해피엔딩>(MBC, 2016) 등에 출연했다. 도시적인 이미지가 돋보여 누구보다 보라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최근 성경 공부 등을 통해 신앙에 깊이를 더하고

있는 그녀는 “지난해였다면 출연을 고민했을 것”이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같다”고 전했다.

보라 엄마 역에는 베테랑 연기자 성병숙, 목사인 아빠 역엔 영화 배우 서태화, 창우 역엔 주연급 배우 심지호가 함께했다. “모든 분들이 선물 같은 캐스팅”이었다는 것이 제작진의 전언. 각 배우들은 <다시 봄>이 국내외 시청자들뿐 아니라 해외 선교사들도 함께할

작품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각자의 오랜 연기 경력들을 현장에서 200% 발휘해주었다.

조연 배우들도 이미 대중들에게 친숙한 감초 연기자들이 대거 포진해 대본 이상의 맛깔 나는 연기를 보여주었다. 친구 미연에 정수영, 찬수에 김경진, 현성에 차순배, 옛 중등부교사 순분에 전성애, 슈퍼 주인에 장광 등이 출연했다.

<다시 봄>의 주요 촬영지는 강화였다.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항공촬영 2회를 포함해 총 8회차였던 촬영은 서울에서 1회, 나머지 5회는 모두 강화에서 진행됐다. 이에 강화 내 교회 섭외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최종 섭외된 곳은 강화 흥왕 감리교회(담임 신광철 목사)였다. 사실 흥왕교회는 섭외리스트에 있던 곳은 아니었다. 장소 헌팅 중 발견된 곳으로, 정갈한 잔디가 깔린 시골 마을의 하얀 교회였다. 뜻밖의 상황이었지만 평소 CGNTV를 애청하고, 고 하용조 목사를 존경했다는 흥왕교회 신광철 담임목사는 “CGNTV를 통해 늘 귀한 복음을 무료로 듣는데...”라며 선뜻 장소를 내주었다. 더불어 신 목사를 통해 교회 성도의 집도 소개받아 집안 장면 촬영도 무리 없이 진행됐다.

### 4. Location

강화 흥왕  
감리교회를  
발견하다

### 5. Staff

촬영, 음악, 편집 등  
전문 스태프들이  
참여하다

<다시 봄>은 드라마 제작사 MI를 비롯해 파트별 전문 스태프들이 합류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작품은 드론 연구가인 보라의 직업과 하나님의 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드론 촬영이



필수였는데, 본 작품의 메이킹 기사와 인연이 있었던 중국의 한 업체가 고가의 드론을 그를 믿고 협찬해주었다. 또한 드론 전문 기사들도 작업에 참여하며 완성도 높은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작품은 드라마 <도깨비>(tvN, 2017) 등에서 사용됐던 카메라 알렉사 미니로 촬영을 진행했는데, 고가의 장비를 신영필름을 통해 부담 없는 가격에 빌릴 수 있었다. 신영필름 관계자가 평소 CGNTV 애청자였던 이유가 컸다.

음악과 음향도 신앙적인 유대 아래 신세계 레코드가 함께 했다. 신세계 레코드 유미나 대표는 “부모님이 평소 CGNTV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서 이번 작업에 참여했다”며,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높은 음악적 성과를 이번 작품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비쳤다.

작품의 편집, CG, 색보정 등 후반 작업은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SBS, 2016), <고백부부>(KBS, 2017)를 작업한 베테랑 전문 업체 인스터가 작업했다.

<다시 봄>은 12월 중순 최종 작업을 완료하고, 12월 25일 오후 10시 40분 시청자들과 처음 만난다.



황선희 (주인공 보라 역)

## 누군가의 봄을 위해



CGNTV 첫 드라마, 첫 이야기를 이끌 주인공이 공개됐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확실한 연기력을 선보였던 배우 황선희다. 드라마 <싸인>(SBS, 2011), <주군의 태양>(SBS, 2013), <복면검사>(KBS, 2015) 등에서 주로 도시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던 그녀가 CGNTV 첫 드라마에 출연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선희는 처음 <다시 봄>의 대본을 읽고, 주인공 보라 역할에 강한 끌림이 있었다. 아픈 기억을 묻고 사는 그녀가 충분히 이해됐고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확신을 갖고 출연을 확정된 황선희는 9월 마지막 주, 드라마 <다시 봄> 촬영에 합류했다.

촬영은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강행군이었다. 첫날 촬영에서는 드론 장면을 찍기 위해 잠수고 일대를 중횡무진 뛰어다녔다. 메니에르라는 생소한 병의 증상과 상처를 품고 사는 인물의 예민하고 어두운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철저히 연구하며 연기에 임했다.

또 이야기의 중반부, 아버지가 남긴 뜻밖의 선물을 마주하는 장면을 찍을 땐 어느 때보다 집중력을 갖고 연기했다. 보라의 가슴 속 응어리와 마주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며 눈물이 난다”며 “평소 ‘하나님 아버지’ 라는 말에도 눈물이 난다”고 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녀는 매회 촬영이 뜻깊고 감사했다. 항상 기도로 시작되는 촬영, 주일이면 모든 일정을 내려놓는 모습들이 좋았다.

황선희는 한 스태프와의 식사 자리에서, 출연 전 평소 잘 사지 않던 스타일의 옷을 우연히 사게 된 일화를 나눈 적이 있다. 옷을 구입할 당시에는 생각지 못했지만 모두 ‘보라’ 역에 잘 어울려 작품에서 그 옷들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을 느꼈다”는 그녀는 “보라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지금까지 신앙의 과정들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제작진은 <다시 봄> 기획 단계부터 “이 작품의 영적 가치를 아는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딱 맞는 배우가 맡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황선희 역시 “방송이 되면 이 드라마가 누군 위해 봄을 준비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촬영 소감을 밝혔다.

성병숙 (보라 엄마 해옥 역)

## 다시 나를 보고, 다시 봄을 맞고



배우 성병숙은 “일이 곧 예배”라고 말한다. CGNTV <예수님이 좋아요>에서 어린이 목소리 성우를 맡아 1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일이 곧 예배”라는 그녀의 말은 쉬이 수긍된다. 그녀는 올해 일일드라마를 포함해 총 4편이 넘는 드라마를 찍었다. 영화출연까지 병행한 바쁜 스케줄이었다. 그 와중에도 CGNTV를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변함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CGNTV 첫 모바일 미니시트콤 <두근두근 마카롱>에 출연했고, 올해엔 CGNTV가 드라마에 처음 도전한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봄>에 흔쾌히 출연을 확정했다. 그녀는 당연한 일이라는 듯 “하나님의 일인데, 무조건 해야죠”라며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한 훈련 아니었겠나”라고 했다.

이번 드라마에서 그녀가 맡은 역할은 주인공 보라의 치매 걸린 엄마, ‘해옥’이었다. 온전히 헤아리기 어려운 이 캐릭터를 성병숙은 자신의 오랜 경험에서 길을 찾고 연기에 진정성을 더했다. 그녀는 실제 8년간 치매를 겪었던 어머니

를 모셨고, 뇌졸중을 앓았던 아버지를 돌봤다. 그녀는 “우리 엄마와 함께했던 삶은 나의 어떤 작품에도 녹아든다”고 했다. “사랑하고 보살피고 미워하고 화해하고, 철들기 전부터 철든 후까지 모든 모습들이 작품에 반영된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다시 봄>의 제작진들은 “그녀는 실제 해옥이 되어 촬영장에 왔다”고 전했다.



성병숙은 이번 현장을 “소풍 같았다”고 표현했다. “힘든 작업이 진행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 같았다”고 했다. 촬영이 쉽게 풀리지 않아도 서로 질책이 아닌 기도와 격려로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흐뭇했다. “딸의 가슴 속 응어리가 처음 육하고 터지는 장면이었어요. 생각처럼 감정이 표현되지 않아, 딸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랬더니 스태프들도 다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속에선 화를 내거나 돌아서는 게 다반사죠.”



또 그녀는 촬영지였던 강화도 흥왕교회가 더없이 좋았다. 마치 해옥의 마음속 바람, 꿈의 풍경을 마주한 것처럼, 성병숙은 마니산이 흰히 보이는 교회에서 실제 흥왕교회 사모님이 내려주신 커피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행복한 기억이었다.

성병숙은 “작품을 처음 접하고 제목 <다시 봄>이 참 좋았다”고 했다. 제목처럼 “각양의 상처,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번 작품을 통해 다시 나를 보고, 주변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그로 인해 저마다 ‘다시 봄’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태화(최봉길 목사 역)

## 처음 신앙을 떠올리다



사랑했던 만큼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아프고 아련하게 남아있는 아버지. <다시 봄>의 아버지 역에 배우 서태화가 출연했다. 그는 이야기의 출발점인 19년 전 서글서글한 눈매의 순박한 최 목사로 완벽하게 웃을 입었다.

과거 속 인물인 서태화는 총 3회차 촬영에 참여했다. 배경 교회였던 강화 흥왕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를 위해 집에서 쓰고 있던 TV도 서슴없이 내주고, 꽃도 선물하는 최 목사를 연기했다. 찬양대회 수상을 놓쳤다고 풀이 죽은 아이들에게 자장면을 사주며 격려하고, 새침한 딸의 사랑스러운 모습도 늘 흐뭇하게 지켜본다.

짧다면 짧은 일정이었지만, 촬영을 마친 현재, 서태화에게는 최 목사를 연기한 그 3일이 마음속에 특별하게 남아있다. 최 목사의 순수한 중심에 집중해

연기하는 동안 어릴 적 향수에도 젖었고,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 드라마 속 추억의 찬양대회 에피소드는 실제 그도 겪었던 일이었다.

“중고등부 때 성가 중창 대회에 나가서 1등을 놓치고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나요.” 부산 태생에 제주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는 그룹사운드도 결성해 고등부 초청 발표회 무대에 서기도 했으며 추억을 되새겼다.

그에게는 <다시 봄>의 최 목사가 그랬듯, 중고등부 시절부터 함께 한 특별한 목회자가 있다. 현재 서울 무학교회에 출석 중인 그는 교회의 담임목사인 김창근 목사를 중고등부 때 처음 만났다. 김 목사가 전도사로 제주도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였다. 그는 “김 목사님이 2년 후에 은퇴하신다고 하니 그분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는 셈”이라며, “그사이 저의 신앙에도 많은 성장이 있었다”고 했다.

서태화는 최 목사를 연기하며 “그의 섬김, 누군가에 대한 간절함 등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순수한 신앙,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 10여 년 전,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것, 전도를 하고 싶어 SNS에 매일 말씀을 올렸던 기억도 떠올랐다. 당시 그는 SNS에 신약 전체를 올릴 정도로 열정이 컸다.

특히 서태화는 현장에 있던 강화 흥왕교회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교회 분위기나 규모가 <다시 봄>의 최 목사가 시무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3일간의 시간과 은혜를 돌아보며,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이 처음 신앙을 되찾고, 상처를 마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지호 (윤창우 역)

## 현장이 준 특별한 회복



배우 심지호가 전도사 창우 역으로 <다시 봄>에 합류했다. 촉망받는 훈남 배우인 그의 출연은 그 자체로 눈길을 끌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아르곤>(tvN, 2017)에서 험담하고 명석한 경제 전문 기자로 변신했던 그는 데뷔 이후 18년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배우로서 한창 달려가는 가운데 만난 <다시 봄>. 그는 <다시 봄> 대본을 처음 받고 “감사했고, 반가웠다”고, 촬영을 끝낸 후에는 “내게 특별한 봄을 선사한 드라마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9월 말 진행된 <다시 봄>의 촬영은 <아르곤>의 종반부 촬영과 맞물리는 일정이었다.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심지호는 그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라며 열정을 보여줬다. 그는 자극적인 문화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 이번 작품이 더없이 반가웠다. 그는 대본에 대해 “따뜻하고 좋았다”고 했다. 또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장하지 않은 분들도 따뜻하게 공감하며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드림교회에 출석 중인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신앙 생활을 해왔다. 배우의 길에 들어선 것도 고등학교 때 한창 진로를 고민하며 뜨겁게 기도했던 결과다. 현재 30대 중반으로 학창시절 교회 공동체 생활도 열심히 했던 그는 비슷한 시절을 조명하는 <다시 봄>이 여러모로 뜻깊은 작품이었다. 소중했던 사람들, 더러는 그 시절 부족했던 신앙의 모습도 떠올랐다.

더불어 심지호는 이번 작품을 하며, “참여 그 자체로 회복이 됐다”고 했다. 무리한 일정 가운데 왜 이 작품을 하게 됐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배우로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좋은 인연들을 만나 감사했고, 그저 현장에 있던 것만으로도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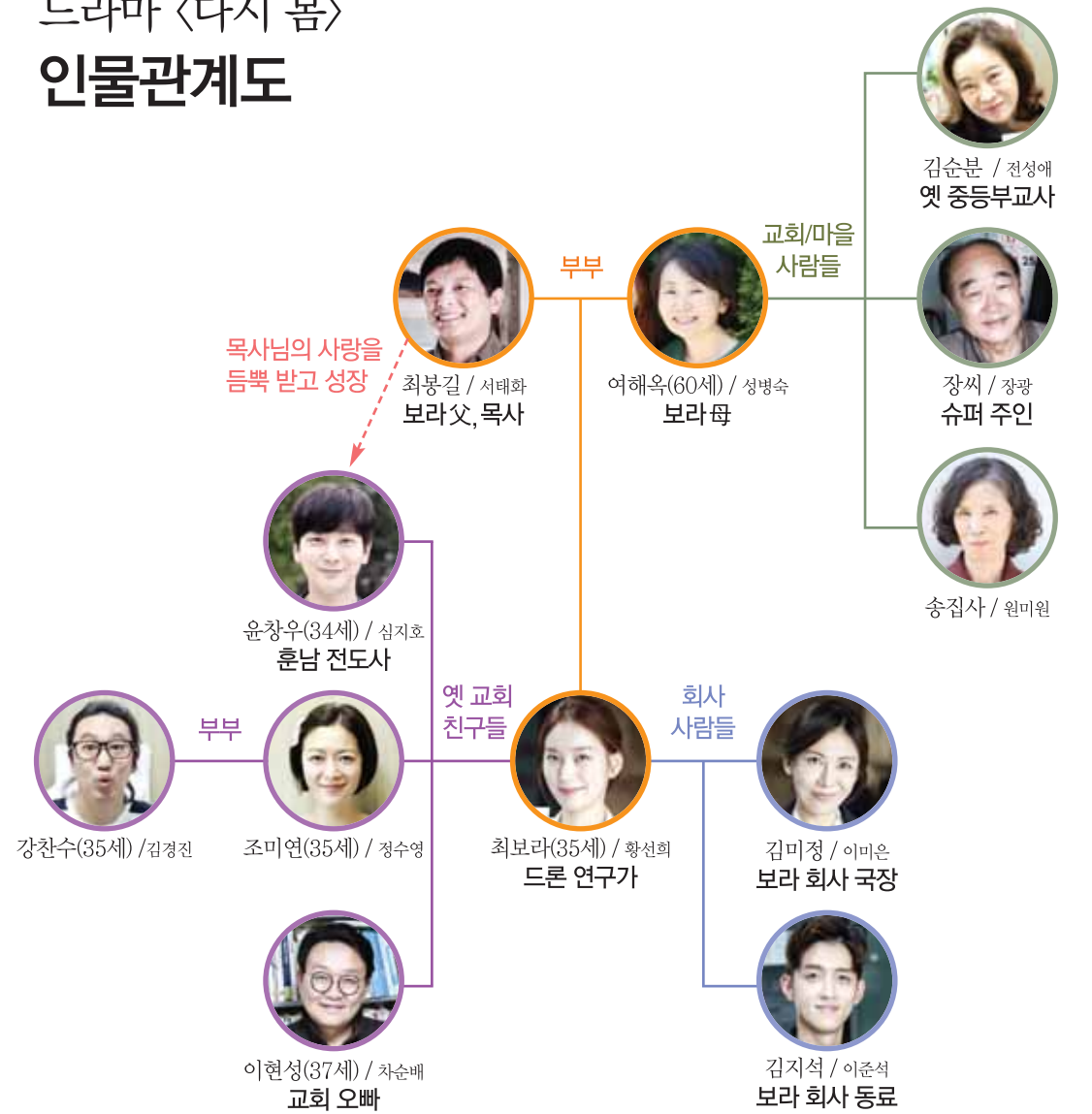


심지호가 연기한 창우는 바르고 따뜻한 시골교회 전도사다. 상처 입은 여주인공 보라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소리 없이 동행하는 인물이다. 그는 이번 역할에 대해 “캐릭터 자체가 튀진 않지만, 이야기의 갈등 부분마다 스스로 어떻게 있어야 할지 많이 생각했다”며 작품 전체 메시지를 먼저 헤아리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작품을 통해 회복의 봄을 먼저 느껴서일까. 심지호는, 한때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아닌 이들과 신앙의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봄>을 추천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작품에 위로받고, ‘나도 저랬지!’ 라고 추억하며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 드라마 <다시 봄> 인물관계도



## 아역



## 2017 CGNTV 베스트 콘텐츠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은 간증, 강연 프로그램과 크리스천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신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콘텐츠들이 큰 사랑을 받은 한해였다.

CGNTV 시청자가 사랑한 TV 프로그램

- 1** **나침반**: 맞춤형강 나침반 ☎ 매주 월, 화 11:00
- 2**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 매주 목 11:30
- 3**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 매주 월 11:30
- 4**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 매주 화 11:30 + 6월 첫 방송
- 5** **[세미나] 유은정 원장의 마음치료 코칭 (상반기)**
- [세미나] 박영덕 목사의 새롭게 읽는 로마서 (하반기)**

**BEST 5**

기독교방송 IPTV 시청률 **1**위

2017년 1월~10월 IPTV 가구 시청률 기준

[프로그램 다시 보기](#)

홈페이지 [www.cgntv.net](http://www.cgntv.net)  
모바일 [m.cgntv.net](http://m.cgntv.net)

CGNTV Korea  
페이스북 페이지 인기 동영상



**BEST 3**

- 1** 나의 스승, 샤프 선생님  
김요셉 목사(차세대 부흥 세미나)  
6월 4일 오픈, 누적조회수 **147**만
- 2** 지금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조세핀 김 교수(화요성령집회)  
2월 20일 오픈, 누적조회수 **92**만
- 3** Felebration  
이한영 교수(고난주간 심야예배)  
3월 16일 오픈, 누적조회수 **91**만

KNOCK  
페이스북 페이지 인기 동영상



**BEST 3**

- 1** 현목이의 미니멀라이프  
7월 17일 오픈, 누적조회수 **316**만
- 2** I am 쌤  
11월 26일 오픈, 누적조회수 **283**만
- 3** 두근두근 마카롱  
EP#6 남자들이 사는 법  
4월 1일 오픈, 누적조회수 **117**만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수 **17**만명

# CGNTV 은혜의 2017

2017년 CGNTV는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고자 미디어 선교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한 해를 보냈다. 예배, 큐티, 말씀 강해 등 풍성한 영적 콘텐츠들은 물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자체 제작 첫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했고, 첫 드라마도 선보였다. 또한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SNS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맞춤 콘텐츠들도 강화했다. SNS를 접목해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한 TV 프로그램도 시도했다. 더불어 미디어 아카데미를 열어 대구와 부산, 대만까지 찾아 미디어 기술을 나누며 섬김을 실천했다. 도전과 섬김으로 달려왔던 CGNTV의 2017년 발자취를 돌아봤다.



## Step. 1 첫 영화 극장 개봉과 특별 상영회

2017년 상반기는 첫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개봉이 CGNTV의 가장 큰 화두였다. '서서평 선교사'를 조명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과 나눔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영화의 메시지는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고, 다양성 영화 4주 연속 1위, 국내 누적관객수 12만 명 이상의 흥행 성과를 거뒀다. 또한 특별 상영회를 연이어 진행해 선교사 자녀, 홀사모, 은퇴 목회자 및 선교사 등 1만 천여 명과 영화의 은혜를 나눴다.

## Step. 2 '성공이 아니라 섬김', 미디어 기술 나눔으로



섬김의 실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 두 번째로 진행된 미디어 아카데미, 고향교회 섬김 등으로 이어졌다. 미디어 아카데미는 CGNTV의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로, 국내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미디어 사역을 돕기 위해 CGNTV 직원들이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며 헌신한 자리다. 특히 올해는 대만까지 찾아가 현지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전북 진안을 찾아 농촌봉사활동과 마을 잔치를 열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고향교회를 섬겼다.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하는 노크팀도 자체적인 영상나눔 프로젝트 <노크스라이크>를 실시해 홍보영상이 꼭 필요한 미자립 교회의 영상 제작을 돕고, 영상 제작 노하우를 나눴다.

## Step. 3 모바일 콘텐츠 강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CGNTV는 올 한해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선보였다.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이 시즌2부터 4까지 총 11편이 공개돼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KNOCK <현목이의 미니멀라이프>, <I am 쌤> 등 미니휴먼다큐도 각각 조회수 316만, 283만 이상을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TV프로그램 <나침반C>도 강의에 SNS를 접목시킨 새로운 포맷의 강의 프로그램이었다. TV로 만나는 주일학교 <나는 야 주의 어린이>는 100회를 기념해 화면 밖으로 자리를 옮겨 첫 '어린이 찬양제'를 개최했다. 그리고 첫 TV드라마 <다시 봄>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 독일 통일, 기도에서 기적으로

내레이션 최윤영



‘통일’로 가는 길,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다큐멘터리 <독일 통일, 기도에서 기적으로>는 독일 통일의 역사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냈다. 통일 당시 동독 경제부 수장이었던 요한네스 루드비히 국무장관은 다큐 인터뷰를 통해 “독일 통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회고했다.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 교수도 “독일 통일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고, 누구도 준비돼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적이자 기도의 응답”이라고 답했다.



1990년, 44년 분단의 역사를 끝낸 독일에는 탄탄한 영적 저력이 있었다. 다큐멘터리 <독일 통일, 기도에서 기적으로>는 그 힘의 중심에 있었던 독일 교회들에 주목하며, 독일 통일의 영적 히스토리를 조명했다. 독일은 500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은 바 있다. 그 정신은 분단의 현실에서도 같은 힘을 발휘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패전국인 독일에는 베를린 동서를 가로질러

높은 장벽이 세워졌다. 교회 건물들도 무참히 허물어졌다. 하지만 서독의 교회들은 섬김의 활로를 꾸준히 개척하며 동독의 교회들을 향한 영적 수혈을 이어갔다. 이에 힘입은 동독의 교회들도 기도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다.

니콜라이 교회도 그중 한 곳이다. 매주 월요 기도회를 통해 꾸준히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이곳은 1989년 7만 군중들이 운집한 대단위 평화 시위의 진원지가 됐다. 베를린 장벽은 이 시위 열흘 뒤 무너졌다. 당시 베를린 시장이었던 월터 모퍼는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된 것은 기적”이라고 했다. 독일 개신교협의회 마커스 드로거 주교도 “사람의 힘으로 담을 쌓을 순 있지만, 벽 넘어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까진 막을 순 없었다”며 “한국인들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방송 다시보기 :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



# 서서평과 서서평들

내레이션 명세빈 / 출연 윤안나 외



다큐멘터리 <서서평과 서서평들>은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이하 <서서평>)의 후속 다큐멘터리다. ‘선교사 서서평’의 삶과 사역을 깊이 조명했던 영화에 이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날의 ‘서서평들’을 만나본다.

또한 영화에서 서서평을 연기했던 배우 윤안나와 함께 광주 양림동과 독일을 찾아 다시 한 번 서평의 흔적을 살펴본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의 배우 명세빈이 내레이션을 맡아 더욱 친근함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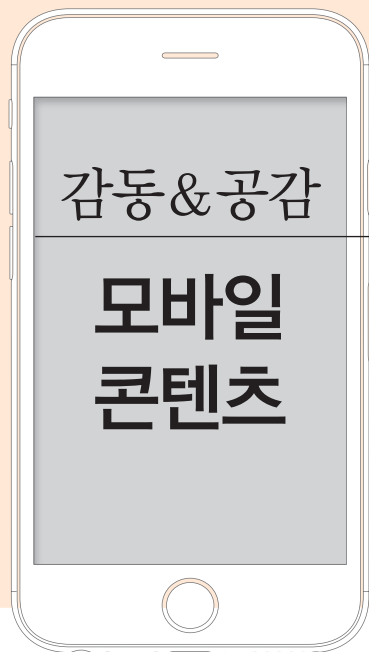
서서평 선교사가 낳은 가장 큰 열매는 역시 사람이었다. 그녀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맛봤던 사람들은 결국 그 빛을 나누는 또 한 명의 서서평이 돼 있었다. 그들은 서서평 선교사의 길을 오롯이 따라 천대받고 무지

했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일깨우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었다. 다큐멘터리 <서서평과 서서평들>은 그 ‘서서평들’ 중 서서평 선교사의 제자였던 조아라 선생을 조명하고, 강형신 전도사, 백춘성 장로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영화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소개하며 선교사 서서평을 지금 이 땅에 알리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본다.

독일 비텐베르크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세계인들이 한데 모이는 종교개혁 박람회가 열려 ‘서서평 선교사와 종교개혁의 참 정신’을 되새겨봤다. 또 배우 윤안나와 함께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를 찾아 영화 <서서평> 상영회를 열었다.

영화를 본 독일 관객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삶의 본보기로 삼기를 바란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했던 영화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감동 & 공감

모바일 콘텐츠

바쁜 일상 속 쉽고 공감, 웃음과 감동을 전하는 CGNTV 모바일 콘텐츠 새롭게 런칭한 <PAUSE(퍼즈)>, <감수성> 미니휴먼다큐 <I am 쌤>,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시즌4) 등이 폭넓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으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래 영상은 'CGNTV Korea', 'KNOCK'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TV캐스트,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

### 1. PAUSE

#우리에게 #필요한건 #일시정지 #성경말씀 #1분으로 #영혼충전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SNS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자연과 일상의 곳곳에서 들려주는 성경말씀으로 지친 하루를 위로한다. (시즌1\_총 6편)

- 공감 댓글**
- “꿀 똑똑~귀 썩썩~이런 영상 좋아요!!”
  - “잠깐 쉬어가듯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접하니 저도 같이 숲속에서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신 느낌이네요.”
  - “마치 예수님께서 내레이션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히 잘 봤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됩니다.”

### 2. 감수성

#너와나의 #공감일기 #감성돋는 #수성이의 #성장클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겪는 일들을 감성적인 글귀와 짧은 영상으로 표현하여 함께 공감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즌1\_총 6편)

- 공감 댓글**
- “그대들의 수고를 영상을 통해 위로합니다.”
  - “고맙습니다. 공감 100%”
  - “감수성 덕분에 하루의 숨을 얻는 것 같네요.”
  - “참된 행복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헌신할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영상 같아요. 감동입니다.”

### 3. KNOCK 미니휴먼다큐 <I am 쌤>

“괜찮아,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별난 비행 청소년이었던 <별을 만드는 사람들> 심규보 대표가 위기 청소년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 공감 댓글**
- “그냥 ‘우와, 멋있다’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 얘기 나와서 쪼매 놀랐다ㅋㅋ 근데 생각해보니 저런 일 가능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 말고 더 있을까.”
  -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해 밝으면 교회 재밌게 다니자.”
  - “어찌 저런 마음을 갖고 사실까, 멋지신 분. 좋은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 시즌4

2017 서울웹페스트 베스트 스케치 코미디상 수상에 빛나는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시즌4! 12월 2일부터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 더욱 리얼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EP#12 '로켓리스트' 평범한 신혼부부인 현범과 한나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EP#13 '볼빨간 취준기\_취뽕꿀팁' 취준생 가희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EP#14 '쌤앤쌤\_과거탐구생활' 어색한 교회동생 재현과 함께 집을 싣고 수련회 장소로 향하는 가희.



EP#15 'BLACK CHRISTMAS' 예기치 못한 정전으로 뜻밖의 사건을 겪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

# 은혜로 걸어온 길에서

## 베트남 그리스 선교사

‘그리스’, ‘주님의 은혜’.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에서 사역 중인 김 선교사의 이름이다. 분명 세 글자 한국어 본명이 있지만, 김 선교사는 1992년 선교사로 첫발을 떼면서부터, 이름처럼 그저 은혜로만 설명될 삶의 행보를 이어왔다. 더 깊은 오지 산악지대로 늘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 하늘 아래 있다.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계기로, 지난 11월 CGNTV 드림온 콘서트까지 참석해주었던 그녀의 ‘그리스 스토리’, 감사한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작은 기적, CGNTV

“그런 날이 올까? 우리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 게다가 이런 오지에?” 그리스 선교사는 15년 전 즈음, 고향 용조 목사를 통해 CGNTV에 대해 처음 들었다. 세계 어디서나 한국과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설교나 문화 프로그램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현지 방송도 접하기 어려웠던 그리스 선교사에게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사역지인 베트남에 CGNTV 안테나가 설치됐다. 믿을 수 없던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리스 선교사는 하루 종일 TV를 켜두었다.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꿀 송이 같은 말씀도 들었다. 또 처음 두세 달 동안엔 함께 안테나가 설치된 동료 선교사들과 만날 때마다 CGNTV 이야기를 나눴다. 그만큼 그들의 사역지는 복음의 불모지였다.

### 믿음의 선택, 더 오지로

그리스 선교사 부부가 베트남 산악지대에 터를 잡은 것은 2008년이였다. 그들은 1991년 필리핀에 정착한 후, 1997년 베트남으로 사역지를 옮겼다. 6년간 필리



핀 사역에 힘쓰며 교회를 세우고, 믿음직한 사역자들을 세운 후, 더 복음이 필요한 땅을 찾아 떠났다. 그리스 선교사 부부는 20여 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퍼져 있는 산악지역을 품게 되었는데, 그곳은 하노이에서 하루동안 기차를 타고, 다시 이틀간 버스를 타야 도착하는 오지 중의 오지였다. 오토바이를 타거나 한참을 걸어야 하기도 했다. 거주자 제한이 철저히 있던 곳이라 그 길을 4년 반 동안 오갔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내려올 땐 늘 기쁨이 넘쳤다.



### 은혜와 시련 속에서

그리스 선교사 부부는 거주 허락을 위해 끊임없이 관계부처의 문을 두드렸다. 영어, 컴퓨터 등을 가르쳐 주는 조건을 꾸준히 제안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던 중 4년을 넘기던 2008년, 국가에서 갑작스레 관계자들의 토폴 시험 지령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역전되어 환영받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막상 선교의 문이 열리자 자녀들의 교육이 문제였다. 그곳은 학교도 없었고 홈스쿨링도 어려운 상태였다. 두 선교사는 13세, 11세 자녀들을 한국에 있는 기숙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오랜 기도 중에 적합한 학교가 나타났지만, 자녀들을 떼놓는 어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옆친데 뿔친 격으로 그해 받은 건강검진에서 암 통보까지 받았다. 그 가운데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네 살 딸아이가 해주었던 기도때문이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 안식년에 만난 영화

그리스 선교사는 최근 고국에서 안식년을 보냈다. 건강도 많이 호전됐고, 자녀들은 신실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고국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다. 잘 성장한 현지 형제들도 떠오르고, 국내 오지 사역을 권하시는 어머니의 말씀도 귀에 들렸다.

하지만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만난 후 선교를 향한 마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CGNTV에서 마련한 은퇴·안식년 선교사 특별 상영회에 참석한 그녀는 서서평 선교사의 헌신을 지켜보며 지난 사역을 하나하나 되돌아봤다. 특히 ‘다시 조선 땅으로 향합니다’ 라고 쓴 서서평 선교사의 글귀가 가슴속 깊이 박혔다. 저절로 “다시 베트남 땅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다.

상영회를 계기로, 그녀는 지난 11월 CGNTV 후원자 초청 드림온 콘서트에도 참석했다. 그녀는 오직 ‘그리스’, ‘주님의 은혜’로 점철됐던 자신의 지난 사역을 이야기했다. 또 라디오 전파로 베트남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을 나누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종으로, 후원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처럼 다같이 힘써 동역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또다시 선교지로 향했다.

1. 러브터치 사역자 훈련
2. 오지마을 현지인들과 함께
3.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김치교실
4. 키보드 연주 강습



# 태국 CGNTV, 태국 첫 기독교 IPTV 개국

## 그 시작과 비전

태국 CGNTV가 지난 11월 30일 IPTV를 개국했다. 태국 내 유일한 기독교 TV 채널로,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에서, 매일 24시간,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됐다. 태국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된 이번 소식에 태국 교회들은 “오랜 기도의 응답”이라며 반기워하고 있다. 복음의 통로가 확장된 것은 물론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선교 협력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그 첫 삽을 뜨는 개국행사에는 현지 주요 교단 총회장들과 한인 선교사 등 총 360여 명이 참석해 태국 CGNTV IPTV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또한 태국 복음화를 위한 연이은 비전 모임들이 IPTV개국과 맞물려 곳곳에서 진행됐다.



### ‘태국(인)의, 태국(인)에 의한, 태국(인)을 위한’ 태국 CGNTV IPTV 개국 행사

태국 CGNTV의 IPTV개국은 2010년 11월 CGNTV 방콕 제작센터 설립 이후 7년 만에 거둔 성과다. 복음화 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복음의 불모지에 터를 잡은 후, 다방면으로 현지 복음화를 모색하던 가운데, 2015년 9월 태국 최대 교단인 CCT와 MOU를 체결하면서 가시화된 사역이다. 곧 태국 CGNTV의 IPTV가, 더 이상 CGNTV 사역의 일부만이 아닌 태국 교회가 협력하는 인도차이나반도 복음화를 위한 미디어 허브로 떠오른 것이다.



그 시작을 보여주듯 이번 개국 행사도 현지 사역자들을 주축으로, 진일보한 태국 복음화 사역의 신호탄을 쏘았다. 1부 예배는 태국 CGNTV 법인이사인 씨리랏 목사가 사회를 맡았고, CCT 교단 총회장 타위삭 목사가 말씀 선포와 축도를 담당했다. 타위삭 목사는 “미디어 선교야말로 태국 복음화에 꼭 필요한 방법”이라며 “태국 기독교 IPTV를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했다.

2부 핵심 순서인 사역 프리젠테이션도 태국 CGNTV 법인이사인 슌사 목사가 맡았다. 그는 “IPTV 개국으로 인터넷을 통한 CGNTV 시청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앞으로 태국 가정 및 무목교회에 CGNTV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태국 내 EFT교단, 침례교단의 총회장들과 태국교회전도부흥협의회 사무총장 등의 격려와 비전선포가 이어졌다. 본 행사의 마지막인 3부도 태국 뮤지션들의 축하공연으로 은혜를 더했다. 태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인도차이나반도 미디어 선교를 위해 두 나라가 동역자로 연합한 뜻깊은 출발이었다.



### 협력이 낳은 미디어 선교의 새로운 모델



태국 CGNTV는 최근 방콕이 페이스북 사용자 수 세계 1위, 라인 사용 세계 2위 도시라는 점에 착안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 공유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이것이 CCT와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통해 보다 '태국(인)의, 태국(인)에 의한, 태국(인)을 위한' 방송으로 도약하게 되면서, IPTV 개국으로까지 이르게 됐다. CCT는 태국 내 19개 노회, 844개 교회, 약 17만 여 교인, 5개의 신학교육 기관, 2개의 대학

교, 8개의 병원, 32개의 외국선교단체에 116명의 선교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 최대교단이다.

방송은 CCT 외에도 태국복음주의협회(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Thailand), 침례교단 등 태국 주요교단 및 교회, 크리스천들과의 전방위적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제작 콘텐츠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고, 각종 집회 및 세미나, 사역 현장 등을 생생한 중계를 통해 공유할 수도 있게 된다. 태국 침례교단과의 협력을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 <Church at home>은 TV를 통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왔고, 이는 매주 토요일 1시간씩 태국의 지상파인 NBT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탐디나>는 태국 기독교 NGO 'I-serve'의 난민촌 의료사역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프로그램이다. 태국에서 만든 각 프로그램들은 높은 제작 수준을 보이며 일부 한국 CGNTV를 통해 다시 방송되기도 했다.

### 태국어 콘텐츠 제작 확대부터 인도차이나반도의 복음화를 향해

이번 개국한 IPTV는 2020년까지 잠재 시청자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다. 예배, 말씀강해 등 CGNTV의 다양한 콘텐츠를 고화질로 제공해 가정 및 무목교회(목회자가 없는 교회)의 영적 자립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또 향후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라오스어, 미얀마어 등 인도차이나반도 복음화를 위한 현지어 프로그램 제작에도 뜻을 두고 있다.



현재 태국 내 IPTV 보급률은 약 2% 미만으로 시작단계에 있지만 태국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IPTV 파급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태국 CGNTV는 IPTV의 본방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프로그램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태국어 '말씀 강해', '10분 메시지', 'QT', '기획 세미나', '문화 프로그램(페이퍼 스토리, The12, Holy Travel, 60 Seconds)' 등을 제작해 방송 중이고, 태국 내 한류 문화를 반영해 한국어 문화 프로그램인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를 현지어로 번역, 편집해 방송을 시작했다. 특별히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 태국 기독교실업인, 태국 CGNTV와 협력 CGNTV 글로벌 운영위원회 한 자리



태국 CGNTV의 IPTV 개국과 맞물려 태국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비전 모임들이 연이어 진행됐다. 개국 하루 전인 11월 29일에는 태국 CGNTV와 태국기독교실업인연합회(TCBA), 태국 CBMC가 한 자리에 모여 태국 복음화를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각 단체들은 사역의 비전과 내용을 소개하며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모색했다. TCBA와 태국 CBMC는 태국 IPTV개국에 큰 기대를

내비치며, 두 기관 회원들의 직업과 인적 네트워크, 태국 CGNTV의 방송 시스템을 통해 태국 복음화를 위한 더 많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태국 방콕에서 CGNTV 글로벌 운영위원회도 한 자리에 모였다. CGNTV 해외 지사별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각 지사의 사역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 방법 등을 나누었다. CGNTV 정상건 운영위원장은 "CGNTV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위해선 글로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차세대 운영위원회 조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CGNTV 5만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선교지를 위한 손길 이어져



CGNTV의 정기후원행사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졌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것은 매년 진행되는 ‘CGNTV 정기후원 행사’로, 지난 9월 17일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CGNTV는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후원자가 되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역의 현주소를 알리며 후원을 독려했다. 특히 올해는 전 직원이 특순으로 ‘순종’을 부르며 정성을 더했다. 총 4천 백여 명이 이번 행사를 통해 신규 및 증액후원을 하면서 CGNTV 정기후원자 수는 총 3만 천 명을 넘어섰다.

이어 10월 31일에는 CGNTV 후원을 위한 ‘CGNTV 후원 골프대회’가 진행됐다. 올해는 일본 러브소나타 크리스천CEO포럼에 참석했던 일본 기업인들이 다수 내한해 후원대열에 합류했다. 오카야마 재일 민단 송찬석 단장은 “최경주 선수가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며 참석자들을 위해 온 힘을 쏟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CGNTV의 비전에 함께하게 돼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일본 기업인들은 참가 후 CGNTV 정상권 운영위원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11월엔, CGNTV 후원을 위한 ‘드림은 콘서트’가 2일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20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DG양상블, 소프라노 신델라의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에는 CGNTV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진행자인 박지윤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구미국제교회 권주은 목사와 박정림 사모, 인도 이도식(가명), 박은경(가명) 선교사, 베트남 그레이스 선교사 등이 참석하여 CGNTV의 가치와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었다. 선교사들은 “CGNTV는 친구이자 동역자”라며 “미디어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 함께 기대하며 동역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동안교회(담임목사 김형준)와 은혜샘물교회(담임목사 박은조)에서도 각 11월 12일, 11월 19일, CGNTV를 위한 후원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3년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두 교회는 CGNTV 후원영상과 담임목사의 메시지를 통해 CGNTV를 알리며 후원을 독려했다. 두 교회에서 올해 총 200여 명의 후원자가 증가했다.

후원행사를 마친 CGNTV 임직원들은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며, “귀하게 모인 후원금은 국내외 크리스천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다음 세대와 비기독인들을 위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CGNTV 정기후원은 전화나 CGNTV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동참할 수 있다.

※ 후원문의 : 02-796-2243



## CGNTV 콘텐츠 연이은 수상 화제 <사랑하기 때문에>, <현목이의 미니멀라이프> 외

2017년 연말, CGNTV 콘텐츠들의 연이은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 개국특집 다큐멘터리 <사랑하기 때문에>(유진주 PD)와 KNOCK 미니휴먼다큐 <현목이의 미니멀라이프>(황지수 PD)가 한국기독교 언론대상에서 각각 ‘선교 부문 최우수상’과 ‘나눔기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보도팀은 <숫자로 보는 선교> 시리즈(박꽃초롱 기자)로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방송 보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필리핀 박누가 선교사의 헌신적인 의료 선교사역을 그린 <사랑하기 때문에>는 지난 4월 2일 CGNTV 개국 특집으로 방영돼 깊은 감동을 전했고, 노크 미니휴먼다큐 <현목이의 미니멀라이프>는 나눔을 실천하는 윤현목 청년의 일상을 진솔하게 담아 조회수 316만 이상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숫자로 보는 선교>는 ‘종족’, ‘4차 산업 혁명’, ‘환경과 선교’ 등 선교와 관련된 주제를 숫자를 통해 심도 있게 다뤄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CGNTV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도 지난 8월 18일 ‘서울 웹페스트(SEOUL WEBFEST) 2017’에서 여러 작품들과 경쟁한 가운데 ‘베스트 스케치 코미디(BEST SKETCH COMEDY)’상을 수상했다. KNOCK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두근두근 마카롱>은 현재까지 총 15편이 업로드 됐고, 연애와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2030 세대들의 공감스토리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 ‘RENEWING’, CGNTV 전 직원 비전수련회

CGNTV 전 직원 비전수련회가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그레이스힐 SCG 강화수련원에서 진행됐다. ‘RENEWING’을 주제로, 6개 해외 지사(미주,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아랍)를 포함한 CGNTV 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각 지사 및 국별 비전 공유, 영성강화 및 교제를 위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전 직원들의 연합을 도모했다. 저녁집회는 김용의 선교사가 강사로 초빙돼 ‘복음의 능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디자이너 장성은의 간증과 KNOCK 출연자인 이요셉 목사, 김준영, 최상현 전도사, 윤현목 형제의 나눔이 수련회의 은혜를 더했다. 수련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은혜로 재충전했다”며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CGNTV 연탄봉사

CGNTV 전 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실시했다. 지난 12월 14일 경기도 광주를 찾은 CGNTV 직원들은 이용경 대표를 비롯해 160여 명의 직원들이 세 개조로 나눠 4천 장의 연탄을 나르며 사랑의 온기를 배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CGNTV의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는 CGNTV의 핵심 가치인 ‘공유, 공감, 공생’을 실천하고자 시작됐다. 연탄 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온 직원이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 해외뉴스

## 인도네시아 CGNTV

### 3주년 감사예배, 드림온 콘서트 성료

인도네시아 CGNTV가 지난 10월 14일 설립 3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후원을 위한 드림온 콘서트를 진행했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현지 기독교인 지도자 및 한인 목회자, 선교사 등 5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선교사 서서평의 메시지인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를 주제로, 다시 한 번 지난 사역을 돌아보며 새 도약의 비전을 다졌다. 예배의 설교를 맡은 인도네시아 복음주의교회협의회 자문위원장 누스레이마스 목사는 "CGNTV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잘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한인 자문위원장으로 자카르타 믿음교회 이재정 담임목사가 새롭게 위촉되기도 했다.

예배 후 진행된 후원을 위한 드림온 콘서트는 해를 거듭할수록 열기를 더해가며, 현지인 출연진들을 중심으로 축제의 한 마당이 펼쳐졌다. 오케스트라, 워십댄스팀 등 9개 출연진들이 무대를 빛냈



가운데, 현지 스티븐 신학교 합창단이 한국어로 찬양을 불러 한-인양국의 화합을 다지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또 북수마트라에서 장애인 사역 중인 사라기 목사가 간증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도네시아 CGNTV가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발전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복음화에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도네시아 CGNTV는 현재 인도비전 라이프 채널과 파푸아 자야TV를 통해 매일 1시간씩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다음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 보급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 아랍 CGNTV / 미주 CGNTV

### 영화 <서서평...> 글로벌 상영회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메시지가 지구촌 대륙 곳곳을 감동시키고 있다. 올 하반기 아랍 CGNTV, 미주 CGNTV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유럽, 중동, 미주 지역까지 집중적인 글로벌 상영회가 펼쳐졌다. 영화를 접하기 힘든 한인 및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상영회는 총 2만 2천여 명이 영화를 관람하며 감동의 메시지를 나눴다.

아프리카에서는 케냐 한인선교사대회를 통해 선교사 100가정 총

153명이 영화를 관람했다. 시각장애인 선교사, 고아와 과부를 돕는 선교사 등 또 한 명의 서서평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은 영화에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독일의 3개 한인교회에서 상영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상영회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 선교사들 및 이주 난민들도 영화를 관람해 자리에 의미를 더했다. 또 서서평 선교사의 출생국인 독일에 서서평 선교사를 또 한 번 알리는 계기도

됐다.

중동지역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와 두바이, 오만의 무스캣, 블레임 등 총 4개 도시에서 선교사 가정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했다. 참석자들은 "영화를 통해 예배의 목마름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2명의 선교사가 상영 후 CGNTV 운영위원회에 동참하기로 자원했다.

미주도 북미 한인 밀집지역인 LA, 뉴욕(뉴저지), 달라스, 시카고,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7개 도시와 캐나다 토론토에서 5개월간 대대적인 상영회를 이어갔다. 북미 관객 총 2만 천여 명이 영화를 관람했고 영화에 대한 깊은 감동을 고백했다.



## 대만 CGNTV

### 현지 사단법인 설립

대만 CGNTV가 지난 9월 25일 대만 현지 사단법인 설립대회를 열었다. '중화기독교한구복음망협회'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법인은 향후 대만 현지 후원회 조직 및 후원금 모금 활동 등에 힘쓸 예정이다. 대만 CGNTV는 이날 법인을 담당할 9명의 이사회 구성원과 3명의 감사를 선출했다. 또 초대 이사장으로 지난 9년간 대만 CGNTV와 협력해 온 장즈첸싱따회의 쟁전화 목사를 추대했다. 쟁전화 목사는 대만 CGNTV 초창기부터 사역에 적극 동참해 온 목회자로, 현지 목회자 중 CGNTV의 비전과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역자로 꼽히고 있다. 대만 CGNTV는 2018년부터 본격적인 법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일본 CGNTV

### SNS 전용 토크 프로그램 제작

일본 CGNTV는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토크 프로그램 <신문기사와 함께 올해 되돌아보기>를 제작했다. 일본 크리스천 신문과 함께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해당 매체의 기자와 독자가 한 자리에서 만나, 2017년 신문지상에 보도된 일본 내 기독교 핫이슈를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되짚어본다. 일본의 가정집 실내를 배경으로 이슈별로 편안하게 진행된 이야기들은 편당 5분 내외로 총 3편 제작돼 '일본 CGNTV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26일, 28일, 30일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 'CGNTV 첫 시청수기 공모전' 삶을 담은 이야기들

제1회 CGNTV 시청수기 공모전이 개최됐다. 'CGNTV를 보다, 은혜를 나누다' 를 주제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다. 대상부터 입상까지 총 24명의 수상작 가운데, 대상은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른 권하영 양이 선정됐다. 권양이 이야기한 프로그램은 매주일 오후 7시 생방송되는 '열린 새신자 예배' 였다. 권양은 유방암 투병 중에도 이 예배를 늘 챙겨봤던 어머니와, 그 곁을 지켰던 자신의 무수한 지난 사연들을 진솔하게 풀어놓았다. 권하영 양의 긴 수기를 지면 관계상 일부 소개한다.

## <대상-권하영> 믿음으로 나아가네

지난 2013년 엄마가 유방암 선고를 받았다. 그것도 늦게 발견한 터라 오른쪽 가슴을 모두 잘라내야 했다. 시간이 멈추고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였다. 나 때문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나 때문에 흘린 눈물의 배로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더 이상 기도할 힘을 잃었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나 엄마는 달랐다.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어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엄마는 CGNTV를 틀어 설교 말씀을 들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위태로운 숨을 내뿔으며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 엄마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 엄마는 시들한 목소리로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리라 믿어"라고 내게 속삭였다. 그날 밤 나는 눈물로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매일 밤 엄마의 두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해가 바뀌어 꽃향기가 가득한 봄. 엄마는 드디어 표적 치료까지 모두 끝냈다. 주위 사람들의 기도와 보살핌으로 엄마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고, 힘도 생겨 웬만한 교회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엄마는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도 늘 CGNTV 시청을 놓지 않았다. 특히 매주일 저녁 방송되는 '열린 새신자 예배' 를 꼭 챙겨 보셨다. 그리고는 매번 나에게 말했다. "언제나 새신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이다. 주일 저녁 새신자 예배는 우리 가정에 큰 힘, 큰 은혜가 되었다.

# 80대에 얻은 감사한 일상

81세 정은희 후원자는 평소 CGNTV를 켜놓고 지낸다. 일반 방송은 뉴스나 일기예보 정도 보며 한 채널 더 시청하는 것이 전부다. 그녀로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들을 멈출 이유가 없다. 그녀가 CGNTV를 후원하게 된 것은 선물처럼 허락된 일상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었다.

정은희 후원자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발달 장애를 가진 52세 큰 아들과 살고 있다. 한 교회를 40여 년 가까이 꾸준히 출석할 만큼 신실하지만, 이제껏 매년 남편의 반대에 부딪혀, 교회 출석이나 십일조 생활, 말씀을 듣는 일도 맘 놓고 할 수 없었다. 후원은 언감생심이었다. 다행히 남편은 딸이 마련한 칠순 예배를 계기로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났지만, 세 아이를 키우며 몸이 불편한 자녀를 돌보던 지난 세월은 그녀에게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 사는 딸과 분가한 막내아들의 재정적 지원 가운데 마음껏 말씀의 위로를 받는다. 주일과 수요일 오전, 오후에는 어김없이 큰 아들과 교회에 나가고, 아들이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직장에 나가있을 동안에는 CGNTV를 통해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만난다. 그녀에게 CGNTV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고 하용조 목사의 말씀 시간은 그녀의 아들도 빼놓지 않고 시청한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에게 임하는 이 은혜가, 오늘도 어딘가에 있을 한 영혼에게 말없이 흘러가길 기도한다.

##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2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 케이블TV

- ▶ CJ HELLO ch.32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D'LIVE ch.304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S 푸른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 IPTV

- ▶ alleh 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B tv ch.302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팟뱅)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 인터넷 서비스

-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품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

### SNS

- CGNTV의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CGNTV Korea : www.facebook.com/cgntv
  - KNOCK(노크) : www.facebook.com/cgntv.knock

※ 기타 시청문의 02-796-9800

**CGNTV**  
프로그램  
편성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영어자막) 05: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10 미니콘서트 심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7: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믿음(영어자막) 08:5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0:20 [말씀]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2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07:0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08:5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0:2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07:4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10: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20 하용조 목사의 믿음(영어자막) 07: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07:4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5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0:2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07:0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영어자막) 08:5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09:30 CGN 비전특강 10: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1:00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C> 11:3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미니콘서트 심 07:0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10:2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0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2:0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6:50 나침반 바이블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2: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1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13: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4:50 [말씀]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16:20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C> 16:50 웨인 코데이로의 알로하 주님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12:30 [말씀]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13:10 [말씀]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4:50 [말씀] 권혁민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컨퍼런스] 오직 복음으로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1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4:1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2: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3:1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4:5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컨퍼런스] 복음과 문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12:3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10 [말씀] 마크희 목사(뉴욕IN2) 13:5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칩 인그램의 성경이 말하는 현대 이슈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50 새벽나라 18:00 [컨퍼런스] 복음과 문화	12:3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3:1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3:5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6: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16:4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7:2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8:2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3:00 나침반 바이블 23:3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3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20:10 이상억 교수의 꽃보다 아름다운 목회상담 이야기 21:0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3: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23:5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임니까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9:3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20:10 IBA 비즈니스 선교 컨퍼런스 21:0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영어자막)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2:4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3: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23:50 크레이그 그로웰의 부르심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20:10 햇불 트리니티 성경강좌 <성서와 지리> 21: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22:4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23: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3:50 데이비드 플렛의 래디컬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19:3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20:10 신성진 대표의 이야기 속 돈 이야기 21:00 [말씀] 권혁민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23:2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23:50 존 파이프의 더 바이블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9: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10 추양재단 목회강좌 21: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22: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3:2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23:50 맥스 루케이도의 더 스토리 00:20 생명의 삶	18:20 하용조 목사의 믿음(영어자막) 19:00 추양재단 목회강좌 20:0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20: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1:2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23:0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3:50 웨인 코데이로의 알로하 주님 00:20 생명의 삶

### 후원안내

CGNTV는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은 힘있는 복음 방송의 밑거름이 돼 선교지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 \* 후원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796-2243
2. 인터넷 신청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3. 모바일 신청 m.cgntv.net [후원하기 클릭](#)

#### \* 후원방식

1. 정기후원신청
  - 통장자동이체 •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신청
  -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ARS 후원 060-700-1660 (한통화 5천원)

#### \* 후원계좌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 해외지사 후원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KEB하나은행 573-910007-48104

CGNTV **실행위원회** 배중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김희준,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권(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상훈, 강신익, 고미애, 고현준,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권익현, 김관근, 김관식, 김명세,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순영, 김신원, 김영길, 김오성, 김용성, 김원균, 김 인, 김인경,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나영욱,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승, 박성호, 박영한, 박이철, 박지수,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성필호, 손제열, 손태용, 손한기, 송영태,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유병진, 유영섭, 유의준, 유이상, 유주희, 윤덕순, 윤석우, 윤영각, 윤원식, 윤진혁,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동엽, 이밖음, 이병하, 이서정, 이석일, 이영희,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창환, 이춘희, 이학일, 이희연,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순애, 장정심, 정상기, 정용주, 정재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지성현,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유강, 최정수, 최훈학, 하성기, 하주현, 한상규, 한성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윤

### 2017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7년 올 한해에도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후원금 납부(2017. 1. 1 ~ 2017. 12. 31) 하신 분들의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CGNTV 후원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안내사항

- 기부금영수증은 본인명의로만 발급가능합니다.
-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총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www.cgntv.net
- 기타 문의 : Tel : 02-796-2243 E-mail : dreamon@cgnmail.net

**CGNTV 홈페이지 발급**  
www.cgntv.net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 (2018년 1월 8일부터 가능)  
(또는 아이디 없이 로그인하여 기부금영수증 출력가능)

**국세청홈텍스 발급**  
www.hometax.go.kr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된 후원자님은 2018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길

김형준 목사 (동안교회 담임)

자기 존재의 능력 발휘와 다양성과 융합의 수용 능력, 그리고 자기 가치의 극대화는 요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길은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공통된 장벽이 있습니다. 굳이 연령별로 분류해보자면 10~20대는 '순종', 30~40대는 '결단', 50대 이상은 '내려놓음'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자기의 것을 세워나갈 때 '순종'은 굴욕처럼 보이고, 세상의 다양성이 펼쳐질 때 '선택과 결단'은 많은 가능성을 묻어 버리는 것과 같고, 귀한 것을 이루었고 확신의 열매가 가득할 때 '내려놓음'은 포기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순종, 결단,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길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삶의 모습입니다.

CGNTV는 순종, 결단 그리고 내려놓음을 통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진리와 지성과 영성을 통해 물질과 현실과 현상에 머물러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내면과 시대를 보게 하며,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하는 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줍니다. CGNTV는 스스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순례자들과 동행해 줍니다. 그리고 흠어진 믿음의 조각들이 복음의 메시지로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영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없는 포스트모더니즘, 물질주의, 실용주의와 더불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다양한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모양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문명의 힘을 입고 시공을 넘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CGNTV는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서 분별의 지혜와 결단의 용기로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